



NCKPC가 제44회 정기총회를 16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

“부동산은 되는데 예배는 안돼” 위헌 판결

지난 18일, 연방대법원은 예배를 홍보하려는 교회에 제약이 가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광고를 하기 위해 길가에 임시적으로 세우는 소형 광고판에 대한 것이다. 애리조나 주 길버트시는 행사 광고의 경우 그 사이즈와 기간, 회수, 개수에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었고 이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정치 후보에 대한 광고판이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광고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저를 찍으세요”란 광고판은 32스퀘어피트 규모로 수개월 동안 세워놓을 수 있지만 “주일예배가 오전 9시예요”란 광고는 6스퀘어피트 이하로 예배 12시간 전부터만 세울 수 있었다.

이에 성인 30여 명이 출석하는 굿뉴스장로교회의 클라이드 리드 목사(82세)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알리기 위해 광고판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당했다. 그는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10여 년에 걸친 싸움 끝에 드디어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변론을 맡았던 자유수호연맹(ADF)은 “연방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승리”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굿뉴스장로교회의 클라이드 리드 목사와 그의 아내 ©ADF

“PCUSA 한인교회, 동성결혼 반대하는 한미노회로”

제44회 NCKPC 총회, 교단 동성결혼 인정 후 대책 발표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가 제44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에서 교단의 동성애 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NCKPC는 16일부터 3일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의 사명’(사60:1a)을 주제로 버지니아 주에서 총회를 열었다.

마지막날인 18일 오전 ‘결혼정의 수정안 통과에 대한 NCKPC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다뤄졌다. 이 보고서에는 PCUSA가 올해 결혼 정의를 ‘두 남녀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변경, 사실상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는 이후 한인교회들이 한미노회를 통해 대처해 왔던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앞으로 한인교회들이 교단 내 동성애 이슈와 관련 목회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교단 헌법이 동성결혼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회와 당회의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한 한인교회를 비롯한 동성애 반대 교회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성애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목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또 개교회와 당회의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규정은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면서 미국 노회에 소속돼 있는 한인교회들은 보다 원활한 목회 활동을 위해 한미노회로 이전하는 것이 대안이라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은 올해 3월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직후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가 노회 차원에서 발표했던 헌법 해석 및 대안 제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장 이영길 목사는 “교단 내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커뮤니티에서 개교회와 당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한 한 상태”라면서 “개교회의 자유로운 목회 활동을 인정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동성애 이슈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타 노회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미노회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개교회에 동성애 찬반을 강요할 수 없음을 교단 헌법이 못 박고 있는 이상 동성애 이슈는 이

미 소속 교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소속 교회들이 100%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한미노회로 이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노회 소속 한인교회들의 한미노회 이전은 NCKPC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며 개교회의 자율에 전적으로 달린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교단의 결혼에 관한 정의 변경에 대해 “동성결혼의 배제를 담고 있던 규정에 변화를 주어 배제의 구체성을 회피함으로써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동성결혼 인정의 재량권을 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NCKPC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장로교 내 400여개 한인교회는 교단의 이러한 ‘허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지난 2013년 NCKPC는 ‘2013년 신학, 윤리, 사명, 선언’을 캔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으며 이것이 동성애 이슈에 대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의 공식적 입장”이라면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아울러 이날 특별위원회 보고 순서에서는 NCKPC 소속 한인교회들의 향후 행동지침도 함께 다뤄졌

다. 행동지침에서는 “교단 헌법의 개방성에 의거하여 동성결혼 주례나 시설 사용에 관하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개교회 담임목사나 당회에 위임된 권한에 의거하여 불허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개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노회에서 한미노회에서 복음주의적 전통을 계승하는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단 내 복음주의 노선의 펠로우십과의 깊은 연대를 가진다는 지침도 발표했다. 지침서는 “교단의 복음적 그룹(Presbyterian Fellowship)과 연계하여 교단 내에서의 역사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여 선교적 교회로서의 부름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또 PCUSA의 친동성애 정책과 관련, 교단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PCUSA 한인교회들을 향한 왜곡된 시각과 비판에 대해서도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침서는 “교단 안팎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편견에 적극 대응하며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의 교단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 신학사(B.A.), 교역학석사(M.Div.)

- 2015년 여름계절학기
5월 18일 (월) ~ 8월 14일 (금)
- 2015년 가을학기 개강
8월 24일 (월)
- ESL 가을학기 개강
9월 8일 (화)

입학관련 문의

www.ptsa.edu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

- 강우중 교수 (wijkang@ptsa.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학생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비전
Vision**

복음적인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학교

**미션
Mission**

80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외한인장로회
(KPCA) 산하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21개 지역 노회와
지교회, 그리고
미전도 지역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학교

**필드
Field**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 유학생 가족(F2)도 학위취득 가능합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시론-

중보기도 대신 협력기도 · 응원기도

‘중보기도’라는 말은 바뀌어야 한다. 이유는 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보기도라는 말이 아무런 의식 없이 쓰이고 있지만 중보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이정근 목사
미성대 명예총장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2:5) 성경은 이처럼 ‘중보기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밝히 선언하고 있다. 중보자(헬, 메시테에스)는 성경에 일곱 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뜻하는 특수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확대해석도 있다. 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마리아나 성인 성녀들을 중재자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차원도 있고 전혀 닮을 수 없는 차원도 있다. 곧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사역이다. 가령 신자들이 순교자가 된다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아무튼 ‘중보기도’ 용어는 바뀌어야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4세기 이래 중보기도가 공식 예배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영어의 Bidding Prayer, Intercession, Supplication 등에 해당되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다행히 예배에서는 근래에 ‘목회기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 소속한 어린 양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뜻한다. 그러나 그것도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회기도에 해당되는 평신도들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들도 옛날 습관에 안주할 뿐 그걸 바꾸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우리 모두가 개혁약속 환자가 된 셈이다. 게다가 말도 한 번 정해지면 바꾸려 하

지 않는 보수성이 있다. 아무튼 글쓴이도 좋은 대안을 내려고 많이 고심해 왔다. 목사와 신학교수가 되기 전에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를 역임했기에 어떤 일인지 그것이 나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성경번역에 참여해 온 경험도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도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복수 대안을 낸다. 제1안은 ‘협력기도’이고, 제2안은 ‘응원기도’이다. 그리고 제3안은 ‘함생기도’인데 이것은 ‘함께 살리는 기도’라는 뜻으로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든 것이다.

매듭지어 말하거나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찬양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는 ‘새 번역’ 성경에 근거한 중재기도도 안 된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목회기도’로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서는 협력기도, 응원기도, 함생기도 가운데서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통일하면 되지 않을까. 우선 이 글을 읽은 분들부터 당장 중보기도 대신 협력기도나 응원기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이 한인목회자를 위한 연장교육을 정신건강을 주제로 개최했다.

현대 목회 정신건강 문제 알아야

캘리포니아신대원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에서 주관한 ‘한인목회자를 위한 연장교육 세미나’가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걸쳐 가든그로브에 소재한 본교 세미나 룸에서 진행되었다.

한인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 건강한 이민목회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이 세미나는 총 4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째날 이광진 교수의 ‘목회자의 성 윤리’를 시작으로 영광렬 교수의 ‘현대 목회 사역과 성경 신학’, 김용준 교수의 ‘비교 종교학’, 그리고 특강 형식으로 김영철 목사의 ‘현대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 등 4개 강의가 진행됐다.

외래 강사로 참여한 김영철 목사(정신건강가족미션 남가주 소장)는 이날 진행된 강의를 통해 현재 우

리 주위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병)과 같은 각종 정신질환의 증세 등을 자세히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의 임상 결과를 통해 터득한 회복의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김 목사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 정신분열증세와 귀신 들림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안찰과 내적 치유 방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학교의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1월과 6월 등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되며, 내년 1월에 개최될 동계 세미나는 하와이에서 1월 18일부터 한 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김영철 교수, 714-636-1722 문수현 기자

“신부 군대여! 일어나라!”

조이엘 목사 초청, 남가주미스바대각성성회 열려

세계기독교여성회(Women's Mission Globalization, 대표 신소피아 목사)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에서 후원하는 제1회 남가주미스바대각성성회가 ‘신부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6월 20일 세계등대교회(담임 이상남 목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일 살롬기도원 성회에 이르기까지 남가주 주요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조이엘 목사가 말씀 선포를 하고 있다.

강사 조이엘 목사(300용사기도선교회 대표)는 20일 오후 7시 세계등대교회에서 시작된 첫날 성회에서 ‘강한 영적 군대 300용사(사 7:1-9)’라는 주제를 통해 남가주 지역 성도들이 영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둘째날 성회에서는 ‘사라의 연고로’(창12:17-20/22:17-18)라는 주제를 통해 “지금의 위기의 시대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교회의 영적 위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화 등 세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사라의 연고로’ 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돌파해 가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김혜영 권사(213-235-6889)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복음 방송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 24시간 기독교 방송국이 개국했다. GBN복음방송 측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의 뉴미디어 방송을 통해 사용자 및 청취자에게 생생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BN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 세계의 한인들이 이 방송의 통신원이 되어 기독교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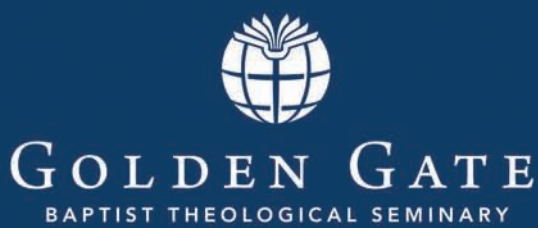
어 방송,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여운영 목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음에 대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GBN복음방송으로 앱을 설치하면 들을 수 있다. 또 페이스북 GBN 복음방송, 웹사이트 www.igbn.net에서도 들을 수 있다. 문의) 213-700-5425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 캠프 25일부터

서부 지역 밀알들이 함께 장애인을 위한 캠프를 연다. 남가주·북가주·시애틀·밴쿠버 밀알 등 서부지단 연합으로 6월 25일-27일 사랑의 캠프가 “Let's See the World!”라는 주제 아래 UC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열린다. 주제 성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다. 올해도 찬양선교팀 PPOG와 청년자원봉사팀 TRAC이 행사를 돕는다.

밀알 측은 “지난 2013년 캠프 때부터 실시하여 깊은 은혜를 준 세족식을 이번에도 거행할 예정이다. 봉사자가 장애인의 발을 손수 닦아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다운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통해 장애·비장애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공동체적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지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한인교회들, 동성애자들의 소송에 대책 있다

교회 헌법과 정관 등 개정 시급... 법률 단체들 예문 제공과 무료 상담 실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회기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가장 타격을 입게 될 존재는 바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가 될 것이란 예측에는 큰 이견이 없다. 2013년에는 결혼보호법(DOMA)의 3개 조항 가운데 세 번째 조항인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법적 결합”이란 내용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결혼보호법의 두 번째 조항 “각 주는 타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결혼보호법의 첫 번째 조항은 해당 법 명칭에 대한 설명일 뿐이므로, 두 번째 조항까지 폐지되고 나면 사실상 이 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큰 사건이다. 아예 결혼이 무엇인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던 이성 간의 결합이 결혼이라 인정되었지만,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던 법이 폐지된다는 말은 누가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부되고 붕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 기독교계에서는 결혼의 정의가 사라지고 나면 한 남성과 한 남성(한 여성과 한 여성)을 넘어서 한 남성과 여러 남성, 한 남성과 여러 여성, 한 남성과 사람이 아닌 그 무엇 간에도 결혼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종교 자유와 평등권 비중 따라 희비

교회의 경우는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www.pji.org)의 브라이언 박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은 동성 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반드시 제동을 걸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예측된다. 먼저는 현재처럼 각 주가 결혼에 대해 정의할 자율권이 있으며, 타주의 결혼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판결이다.

반대로 동성결혼자의 헌법적 권

리를 인정하게 될 경우엔 또 두 가지로 방향이 갈린다. 동성결혼자가 이성결혼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와 상충될 때, 종교 자유에 비중을 둔다는 판결이다. 이런 방향으로 판결이 나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더라도 교회는 종교 자유에 근거해 동성결혼 주례나 예배당 대여, 성소수자 고용 등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으로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동성결혼을 평등권이나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고 종교 자유와 선을 긋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는 마치 피부색에 의해 사람을 차별했던 인종우월집단과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처벌받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제임스 돕슨 박사, 사무엘 로드리게즈 목사, 리처드 랜드 박사 등은 최근 한 성명에서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포함해 어떤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교회들도 법적 대응 준비해야

그러나 판결의 방향과 관계 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종교 자유 관련 법률단체들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최소한의 법적 대응을 마련하라 조언하고 있다. 바로 교회의 헌법, 정관, 내규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www.alliancedefendingfreedom.org)은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와 함께 “Protecting Your Ministry From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awsuits”를 발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와 예문까지 수록된 이 책은 윤리와종교자유위 웹사이트(www.erc.com/store/product_detail/18876)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태평양법률협회도 교회가 교회 헌법이나 신앙고백, 정관, 내규에 반드시 삽입해야 할 내용을 영어와 한국어 번역본으로 정리해 보급하는 한편,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교회의 헌법이나 정관을 무료로 검토해 주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동성결혼에는 교회를 못 빌려 준다”고 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소송이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 패소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헌법 차원의 위법이나 주나 시의 반차별법 차원의 위법이나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기 위해 예배당을 빌려 달라는데 “동성결혼은 죄”라고 말하면 증오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고, 트랜스젠더가 교회의 직원 모집에 지원서를 냈는데 성적 지향성 때문에 불합격시키면 교회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고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성적 지향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놓으면 종교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그 위험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태평양법률협회가 제안한 교회 헌법이나 정관 예문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고 실시되어 왔다. 교회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 간의 일생의 헌신의 언약이라고 정의한다. 교회는 시민 정부에서 인가하는 두 사람의 연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그 연합이 오직 현 교회 헌법(Articles of Faith)에 나타난 결혼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만 원칙 기준에 맞는 진정한 결혼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런 정관을 보여 준 후, “동성결혼은 우리의 신앙 원칙과 맞지 않고 동성결혼식에 교회를 빌려 주는 것은 교회 헌법에 어긋나기에 안 된다”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종교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태평양법률협회가 제안하는 내용은 “교회 사유지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성직자들은 해당 교회와의 고용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교회의 교회 헌법에 동의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성적 지향성 문제로 인한 소송의 방향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사진 : Roman Boed/ www.flickr.com/ CC

해야 하며, 이와 일치된 언행을 수행해야 한다”이다. 또 “이 결혼 정책 요강에 나타난 절차들의 이행에 대해 해당 교회에서 임명된 성직자는, 그의 독자적 판단에 의거하여 요청된 행사가 교회 시설들의 사용을 요하거나 교회 사유지에서 행하는 것을 요할 때, 한 명 혹은 둘 다의 예식 신청자들이 신성한 결혼의 결속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교리적·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현저히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된 행사에 해당 교회의 시설이나 사유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태평양법률협회는 목사 청빙, 직원 고용, 임직자 선출 등에 있어서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고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 및 임직 전 “도덕적 삶이 교회의 신앙고백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래야 만약 성소수자가 교회에 취직하고자 할 때, 혹은 교회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다. 해고될 수 있는 사유도 교회의 신앙고백에 어긋날 경우, 마약 복용이나 범죄의 경우, 책임이 결여된 경우, 당회의 결정을 무시한 경우,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아야 한다.

비단 피고용인뿐 아니다. 한인교회는 교회를 방문해 등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교인이 되어 공동의회 참석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제는 교적을 주기 전에 교회의 신앙고백과 치리에 절대 동의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아 놓아야 소송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다.

현재의 미주 한인교회들은 이런

문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 볼 수 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이 결혼과 성적 순결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나마 낫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효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태평양법률협회의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교회 헌법이 결정적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조항들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 조항들의 언어 혹은 그 언어의 의미를 포함할 때, 그 언어가 규정해 주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단법이 이런 면에서 부실하다면 교회 차원에서 반드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독립교회라면 더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교단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상황이라면, 성적 지향성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법이 상위법인 교단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증빙도 필요하다.

대안 마련했다고 안심하긴 일리

이런 법률단체들이 교회를 돕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교회가 안전할 수 있을지는 법률 관계자들도 확신하지 못한다. 브라이언 박 변호사는 “캐나다에서는 동성결혼이 죄라고 설교하거나 심지어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성경구절만 읽어도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태평양법률협회 한인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는 “협회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에 비해 발전된 종교자유법을 갖고 있기에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e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킨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씬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3rd St, Vermont Ave, Shatto Pl, 6th St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입학 상담: (213) 400-3588,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 제이슨 송의 교육 칼럼

불편한 예수(VIII)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왜 청소년들이 예수(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7. 교회란 속 좁고 증오로 가득찬 사람들의 집단이라 생각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세상이 편리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한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연령이 비교적 낮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는 모든 면에 대해 현재가 과거보다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에 비해 기성세대나 부모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살벌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과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는 교회도 과거나 전통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 세속화된 생각이요 교회와 교리의 중심과 핵심을 무시하고 흐드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요즘 소위 말하는 개방적인 사고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세속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요즘 동성애자, 낙태찬성자, 또는 이단에 가까운 집단이나 신자들을 기존의 교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하나 이것은 복음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을 타협하는 것이지 복음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사랑

이라면 왜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는가?”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교회란 관용없는 종교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의 집단이며, 자신들같이 차이를 존중하는 신세대 지식인은 이런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심한 경우, 어떤 청소년은 교회가 비열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말한다.

부모나 어른이 이런 청소년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귀전을 따지지 않고 사랑, 즉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이다.

그러나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 안된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선 공의, 정의, 정도, 올바른 길, 곧은 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이 공의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죄나 실수를 그냥 덮으시거나, 정반대로 100% 잘잘못만 따지고 대가를 치루게 하는 분이 아님을 알아가야 한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면을 통해 설명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에 가깝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하나님 성품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만이 아님은 꼭 지적해야 한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다.

셋째, 청소년의 주장은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기에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되 사랑은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다. 오히려 정죄하려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후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다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잔혹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그분의 성품을 토대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크리스천 학교에선 이런 것을 인내와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넷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동성애자나 낙태주의자를 비성서적인 말과 행동으로 정죄해 왔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즉, 이러한 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으나 죄를 지적하고 대응하는 방법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점은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교육자들의 책임이 크다. 기독교 지식인 리더들이 평신도나 일반 성도에게 정통 신학에 근거한 명확하고 명쾌한 반응을 전달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로 인해 좌중우돌적인 여러 반응(예: 낙태시절 폭발이 일어났고, 미디어나 개방주의자들은 이것을 전체 교회·교인의 반응으로 다루기에 우리의 자녀도 기성세대 기독교인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비열하고 무자비한 존재라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기독교를 거부하고 차라리 무신론이나 좀더 포용적인 신을 믿겠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은 삶에 경험이 나 지혜가 부족하다. 여기에 자유 개방적인 메시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메시지가 가득이나 부모나 권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끊임 없이 주어지기에 청소년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좀더 성경적이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여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사는 교역자, 교사,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번 콘서트의 출연진, 기금을 전달받은 단체들의 대표, 교계 지도자 등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했다.

“희망과 사랑 나눴습니다”

CTS 희망나눔콘서트 수익, 선교단체와 네팔에 기부

기독교TV CTS America(대표 김종철)가 주최한 ‘2015 CTS 희망나눔콘서트’가 지난 20일 저녁 7시 30분 열바인에 소재한 베델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희망나눔콘서트는 매해 모든 출연진들의 재능기부 덕에 행사 수익금이 지역사회와 선교에 기부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국제농아선교회, 무지개선교회,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샬롬장애인선교회, 아시아안암환우회, 울타리선교회, 조이장애선교센터, 큰사랑선교회, Love One World 등 선교단체와 7개 한인교회내의 어려운 가정들,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된다.

CTS 문화사역단체인 CTS여성합창단, CTS iDream Choir, CTS String Ensemble, 난타 두드림, 남가주장로성가대, 베델한인교회 시온성가대, 소프라노 최정원 등이 참여해 아름답고 은혜로운 무대로 펼쳐졌다.

한편, 이 행사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CTS 주최로 ‘2015 채리티골프 토너먼트’가 엘바인 스토크베리 팜스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방송선교금 및 선교지의 신학생 양성 장학금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 수익금은 선교지 신학생 12명의 학비와 숙식을 해결하는 데 매달 \$100씩 후원될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콘서트



국제복음주의협회 제52차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었다.

국제복음주의협회 목사 안수식 거행

국제복음주의협회(IEA) 목사후보자 교육과 제52차 목사 안수식이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세인트 루이스의 IEA 본부에서 실시되었다. 교파를 초월해 사역 중인 선교사와 전문인 등 총 8명이 이번에 신학 학업을 마치고 안수받았다.

세계선교를 위해 지난 1983년도에 제임스 송 박사에 의해 창립되었다. 현재 IEA 산하에는 미드웨스트대학을 비롯해 세계크리스천스쿨네트워(WCSN), 글로벌리더십연구원(GLI), 국제교육협력기구(IEC), 글로벌게이트웨이대학교(GGU) 등 많은 기관이 있다. 참고) www.ieawm.org

IEA는 세계 지도자 양성을 통한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5 VBS JOIN US

탐미디어에서 준비한 더욱 풍성한 2015 VBS 아이템...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50

VBS CD
(Copy & Print)
\$1 (Min. 50개)

~~\$75~~ **\$60**

VBS BANNER
3 ft x 10 ft \$75

패키지 상품

아이베너/VBS 아이템배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50

VBS T-SHIRT

VBS T-SHIRT를 탐미디어에서 주문 해야 하는 이유

- www.group.com보다 더 저렴한 가격 (옵션)
- 앞면에 교회 이름까지 인쇄
- LA 근교 FREE SHIPPING

어른 \$7.20 (일반사이즈 기준)
어린이 \$4.20

VBS 어린이 선물용품 coming soon

30장 **\$50**

Poster
(11 inch x17 inch)

\$10(5장)
\$30(20장)
+\$20(디자인)

2set **\$130**

2set \$135
VBS 아이템배너 2set

TOPMEDIA
www.topmediausa.com
3170 E.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fo@topmediausa.com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junimedia.com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한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원리

에베소서 4:1-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택하시어 불러내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교회에 목자를 세우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목자가 교회에서 진리정통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우리가 듣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의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때부터 그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실 때,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제멋대로 살던 인생,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 자, 짐승만도 못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소명 받은 자의 삶의 태도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교회에 목회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에베소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는 것은 초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속 쓰이는 자식도 먼저 안아주시는데, 마음에 드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모든 겸손은 하나님을 의

식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추면 많은 것이 우리에게로 담겨 올 수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은혜의 법칙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2. 교인에서 성도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죄인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교인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인이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이란 교회에 다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교인은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에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집니다. 성도는 영어로 ‘Christian’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죄는 회개함으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 죄 값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저주나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 받았기에 죄 값을 치를 이유도,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이

유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고 천국소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리며 순종하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은사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받아 누리게 특권입니다.

3.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어서 제각기 다른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 회개도 안한 상태여서, 옛 생활, 옛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초신자들을 먼저 성숙된 성도들이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초신자들을 안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자신의 삶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소망을 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교인에서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그것이 옛 사람을 벗어 버

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성도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 그제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받은 자들이 한 마음으로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기적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한 피 받아 한 몸이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히 모시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유기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에는 원수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어떤 잘못된 영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울 때 성령 받지 못한 자를 세우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인생이 지금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자신이 마귀 앞잡이 역할을 함을 모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환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합부로 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목자로 쓰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서둘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교인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소망을 가꾸는 성령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장: Sov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정책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8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김정원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Houston, TX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 교회 (독립교단)는 45년의 역사와 자체성전과 기도원을 소유한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1) 목회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랑으로 목양 하실 분
- 2) 보수정통 복음주의 신앙 소유자
- 3)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 영어)
- 4)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5) ATS 승인받은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신 분
- 6) 미국에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7) 담임목사 나이: 35세-49세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 1부) 및 가족사진(본인, 사모 및 가족)
- 2)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각 1부
- 3) 본인 및 사모 그리고 가족소개서
- 4) 최근 설교 CD 2회분
- 5)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추천서 2통(목회자 2명 이상), 추천인 연락처 기재

접수안내

- 1) 제출마감일: 2015년 7월 30일
- 2) 제출처: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이메일 문의: kcchoffice@gmail.com
- 3) 전화 문의: 713-937-7444
- 4) 청빙위원장: 진상철장로 (휴대폰 713-498-3545)

기타

- 1) 제출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 2)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과 설교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보장합니다.

휴스턴 한인 교회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어와 같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했다.

세상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시대 흐름을 타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시대감각 있는 인텔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자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폐쇄적인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대흐름은 1968년 3월 22일 프랑스의 낭테르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낭테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시위가 프랑스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노동자들까지 합세하면서 전국을 마비시킨 대규모 운동이 되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68혁명세대는 모든 기성세대의 전통 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며 탈규범적인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였다. 개인의 차이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오 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이다. 마르크스주의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혼합된 사상이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는 평등한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전염병 때문에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이 병이 하필이면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흑사라도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가 문을 닫고 대중 집회들이 취소되고 있고 시장이나 가게는 손님들의 발길이 뜰 끊어졌다고 한다. 메르스 효과는 심지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당분간은 서로 악수를 하지 말고 눈으로만 인사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모두가 다 메르스 앞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이 때에 가장 앞장서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와 간호사들이다. 그런 까닭에 현재까지 이 병에 전염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다. 물론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이들의 직업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점에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성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사상에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환호하며 68혁명을 일으켰고 그 68혁명이 몰고 온 것이 바로 500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동성결혼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사상이 제무르는 “68혁명정신의 기초가 프랑스 몰락의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 68혁명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바이러스처럼 번지면서 영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슬람이 번창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시대흐름이 중세의 흑사병처럼 유럽을 휩쓸고 이제 세계 선교 1,2위 국가인 미국과 한국을 삼키고 호주를 삼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일부일처를 고집하는 전통적인 가정과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와 교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이 네오 마르크스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무서운 계획을 알

고 우리는 대처해야 한다. 지난 6월 12일까지 우리들은 40일 물맷돌 기도운동을 펼치며 미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저지되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이 6월 말로 연기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더 채워져야 하기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국의 유명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난 6월 10일 일어났다. 연방대법원이 만약 동성결혼을 허용할 경우 “시민 대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하고 10일부터 “전통결혼 수호자들의 서명운동”을 벌였고 하루 만에 42,000명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명하였다. 이들은 거룩한 가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포함해 어떤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말 이 시대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자, 알곡신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신자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한국을 삼키고 호주를 삼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깨어있는 파수꾼이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나팔수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이 땅의 거룩성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입할 대부흥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성도이다.

백의의 용사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기 몸을 희생하며 남을 돌보는 이들의 용감한 헌신은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래 전에 불렀던 어린이 동요인 “간호 언니의 노래”를 다시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노래는 1950년대 동요인데 6.25 동란을 전후해서 전쟁터에서 부상한 장병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지

어진 노래다. 실제로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다 꺼리는 메르스 환자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오래 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들의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질병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메르스와 싸우는 백의의 천사들을 보니, 남을 위한 희생의 미덕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나 잘 살고 우리 식구들 무병장수만을 최고로 아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총알받이가 되신 주님을 본받기는커녕 교회 안팎에서 조그만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철없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

어쩔 것인가? 메르스와 싸우는 백의의 용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 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나를 통째로 바꾼 6·25 전쟁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6·25전쟁은 너무나도 잔인한 세계적 비극이었다. 우리 집 역시 젖더미로 변했고 사랑하는 동생을 폭격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부모형제 친구와는 소식이 끊어진 채 여러 해 동안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전쟁은 내가 사는 자리와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내가 자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다.

이전에는 자신의 노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으로, 세운 목표를 향해 죽자 하고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외부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새로 깨달았다. 즉 99%의 내 노력이 있어도 1%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진리다.

나는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주일 교회에 갔다 오다가 길에서 납치되어 인민군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도망쳐 국군에 귀순하자 곧 집으로 돌아가게 해 준 다던 약속은 빛나가고 몇 년 간 포로 수용소 안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용단과 배짱에 의해 자유인이 되어 오늘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의 노력

보다는 어떤 힘에 의해 이끌려온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무서움의 개념이 바뀌었다. 일제 시대에는 순경이 제일 무서웠고, 학교에 가면서는 선생님이었고 직장에서는 상사였는데 6·25를 거치면서 새로 깨달은 것은 배고픔이 제일 무섭다는 것이었다.

배 가족이 등 뒤에 붙을 정도로 속이 비었을 때는 앉으나 서나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되고 눈을 감으면 고기에 흰 쌀밥을 입이 찢어지도록 밀어넣는 꿈만 꾸었다. 포로수용소 안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가는 신음 소리를 내면 또

한 사람이 가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가겠구나 할 뿐이고, 관심이 있었다면 죽어가는 사람 머리맡에 있는 밥그릇이었다. 며칠간 나뉜 신음소리가 멎으면 그 사람의 옷을 벗겨 피난민들에게 주고 주먹밥 몇 덩어리를 받아서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자 먹는다. 삼일 굶으면 도둑질 하지 않는 놈이 없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맞는가 보다. 동정도 윤리도 종교도 배 부른 다음에 있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많이 흘러 나는 지금 먹을 것이 넘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나의 고민은 필요한 분량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배고픈 경험을 한 자신이 지금은 덜 먹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얻은 것이 있다면 나의 노력과 조물주의 도움이 더해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고 또 배고픈 설움을 경험했기에 오늘날 어떤 음식이라도 달게 먹으며 매사에 감사하면서 조물주께 찬양을 드린다.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1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2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1-3일 내)
- 3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4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흡수율 92-96%)
- 5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제품소개



M3

이 영양 보충제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과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MEGA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GOLDEN WATER

이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정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흡소핑	714.496.7887	뉴욕,뉴저지	201.983.8333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213.268.0844		

동성애 반대, 혐오 아닌 고통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 긴급 대담, 의·약계와 법조계 등 전문인들 참여



긴급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윤덕남 총무, 양병희 대표회장, 황수원 대표회장(한장총), 소강석 목사, 유만석 대표(한국교회언론회), 정성진 목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긴급대담'을 개최했다.

발제자로는 김지연 약사,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의료양병원), 이태희 변호사, 이홍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토론자로는 윤덕남 총무(한기총)와 김명일 사무총장(한장총), 정성진 공동본부장(미래목회포럼), 이병대 사무총장(한국교회언론회)이 참여했다.

먼저 김지연 약사는 "에이즈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과 경로를 파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당국은 에이즈와 동성애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어 염안섭 원장은 그 스스로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며 겪었던 것들을 전했다.

염 원장은 "안타까운 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차별주의자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버림받은 동성애자들을 여전히 돌보고 있는 이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혐오 때문이 아니다. 동성애로 인한 고통을 알기 때문이고, 이는 곧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인권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 "인권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창조주가 부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절대적이다. 그러나 창

조주가 부여한 권리 내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기에 또한 제한적이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셨다. 동성애가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한영사를 전한 양병희 대표회장(한국교회연합)은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전통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전체가 6월 28일 주일을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날로 삼고,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고 했다.

한편, 쿼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청계광장을 거쳐 삼일교에 이르는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한국교회에 염려 끼쳐 드린 것 사과"



이영훈 목사 한기총은 이 글에서 "최근 한기총의 변화와 갱신의 노력을 곡해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한국교회 앞에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한기총은 진정한 변화와 갱신을 이뤄 한국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연합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와 갱신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모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해산의 진통이라고 여긴다"면서 "환골탈태와

각고의 노력으로 반드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메르스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 속히 메르스가 퇴치되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앙을 좀 먹는 이단 세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여러 방면의 시도들은 반드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기독교와 관련해 왜곡되고 편협하게 기록된 역사교과서를 수정해 제대로 된 기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예장고신 총회 선교 60주년 기념대회

지난 30년 이슬람 선교, 1천 만명 넘게 돌아와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장고신 총회(총회장 김철봉 목사)가 고신 선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와 헌신"을 주제로 지난주 고려신학대학원(천안)에서 기념대회를 연 가운데, 김성운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가 이슬람 선교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김성운 교수는 "이슬람은 기독교의 점령지역에서 시작되어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로 확장되어 갔지만, 그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후 이슬람이 유럽의 중심부까지 확장해 갔을 때도 그러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다.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리는 19세에도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은 미미했고 선교의 결과도 거의 없었다. 이슬람 선교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탐만 흘러가는 헛농사 정도로 여겨졌다"면서 "그러한 상황은 20세기 후반까지 계속됐다"고 말했다.

람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이들 대부분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이슬람 사역의 결과"라 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들에는 네스토리안 교회들이 자취를 감추고 난 14세기 이후 600년 만에 다시 교회가 세워졌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터키와 같은 곳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현존 교회들이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 디아스포라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와 함께 이슬람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동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동족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현지 교회의 사역은 선교사들처럼 외부인의 관점이 아니라 내부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선교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이슬람 선교가 보여준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는 무슬림 대상 선교가 강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교회와 선교사가 이슬람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능한 비전"이라 했다.

이지희 기자

"북한 주민 구원과 통일,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

코리아기독교국민연합, '6.25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아기독교국민연합(회장 장석구 장로)이 주최한 '상기하자 6.25,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족을 살리는 기도'(사 21:6-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전준구 목사는 "우리가 사는 세대를 위기의 세대라고 한다. 안보·경제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다. 사회적·교회적으로 이단과 안티기독교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가정, 교회를 위해 영적 파수꾼의 노력을 잘 해야 하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한 대표회장 장석구

장로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아직도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애국 신앙 회복운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절망의 그늘에 있는 북한 주민을 구원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은, 7,500만 한민족의 염원이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권호영 장로는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 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 한함. * 헤어 칼라 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amgreensolutions.com

엠그린의 '닥터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시스템의 공급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Amount Due **\$23.38**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Electric Charges	3/4/14 - 5/5/14	152 KWH	\$23.38
Water Charges	3/4/14 - 5/5/14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322.98**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라마단(Ramadan)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7억의 인구가 무슬림이다. 그 무슬림들이 일 년에 한 달을 반드시 지키는 의무가 있는데 바로 라마단이다. 올해 라마단 기간은 6월 18일~7월 17일까지다.

이슬람에서는 9월을 '라마단'이라고 부른다. 무함마드(이슬람 창시자)가 천사를 통해 꾸란(이슬람 경전)을 계시받은 성스러운 달이라 여기며, 매년 이 한 달간 그들은 집단으로 금식한다.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는데, 어떤 음식이나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독실한 무슬림들은 침도 삼키지 않는다. 그들은 무슬림의 삶의 근본인 5행(行-신앙고백, 기도, 자선, 단식, 메카 순례) 중의 단식인 이 라마단을 통해 이슬람공동체 즉 움마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이러한 라마단이 시작되자 독일 연방정부 공식 페이스북에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금식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글과 함께 "독일 내 그리고 모든 나라의 무슬림들에게 성공적이고 은총 가득한 라마단이 되길 바란다"라는 환영의 글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자세한 금식법과 동참을 권유하는 이슬람 관련 사이트까지 링크시켜 놓기까지하는 친절을 보였다. 이것은 유럽 내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영향력의 크기를 잘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한국 내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 태극기를 수놓은 옷을 입고 '한국 이슬람화'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미국 내 무슬림 세력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전반에 걸쳐 매우 조직적으로 점차 미국사회를 점령해 가고 있다. 이렇듯 이슬람교가 유럽은 물론, 한국,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전 지역으로 급속히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무슬림들이 일년 중 한 달을 드러 영적 연대를 이루는 라마단 기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교회가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슬림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 유해석 무슬림 전문 선교사를 통해 이슬람교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시작

A.D. 610년 무함마드가 40세가 되었을 때, 라마단(Ramadan) 기간에 가끔 하인이 날라다 주는 최소한의 양식만을 먹으며 타인과 떨어진 곳에서 고독과 적막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한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읽으라"(Iqraa)고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무엇을 읽으란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그 영이 말하기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 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읽어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이요,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느니라"(꾸란 96:1-5)고 했다. 무함마드는 그 구절을 따라 읽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또 다른 이슬람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두려워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를 알라의 사도로 임명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서 그 시도를 멈추었다고 한다. 알라의 목소리가 그를 보호한 셈이다.

무함마드는 떨리는 심정으로 집에 와서 부인 카디자(Khadijah)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남편을 안정시킨 카디자는 그의 사촌인 와라카 이븐 나우팔(Waraka Ibn Nawfal)에게 달려갔다. 와라카에게 무함마드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더니, 와라카는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영(靈)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라고 알려 주면서 "그가 이 민족을 위한 예언자임이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카디자는 무함마드에게 와라카가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했던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곧 예언자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녀는 무함마드의 첫 추종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이슬람은 시작되었다.

무함마드가 '라마단 금식'을 이슬람 교리로 지정

12년이 지난 후, 무함마드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메카(Mecca)를 떠나서 메디나(Medina)로 이주하였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도착한 날은 622년 6월 25일로, 이날을 이슬람의 원년이자 이슬람 달력이 시작되는 날로 삼았다. 그리고 메카의 쿠라이쉬 부족들과 전쟁을 시작하였다.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군대가 메디나에 도착하고 2년 9개월 지난 후에 바드르(Badr) 전투가 벌어졌다. 305명의 이슬람 군대가 950명의 메카 연합군을 무찌름으로서, 전세는 이슬람의 승리로 기울어졌다. 이 전투 후에 무함마드는 라마단 기간을 이슬람의 교리로 정하고, 모든 무슬림들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무슬림에게 '라마단'은 죄 소멸과 복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슬람은 믿음과 행함으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슬람의 믿음은 6가지인데, 알라에 대한 믿음, 천사에 대한 믿음, 경전에 대한 믿음, 선지자에 대한 믿음,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숙명에 대한 믿음이다.

또 5가지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앙고백(Shahadah), 기도(Salat), 구제(Zakat), 금식(Saum), 성지순례(Haji)다. 무슬림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에서는 여기에 지하드(Jihad)를 추가한다. 이러한 5가지 행함 가운데 금식(Saum)을 행하는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부른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매년 9번째 달에 해당하며, 이 달을 라마단 달이라고 부른다. 이슬람의 달력은 음력으로 여섯 개월은 29일, 다른 여섯 개월은 30일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서 1년이 355일이다. 따라서 양력으로는 매년 약 10일 정도씩 라마단이 빨라진다.

라마단(Ramadan)이라는 단어는 '불에 탄다'는 의미인 '라미

다'(Ramida)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시기에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뜻이다. 무함마드 A. R. 테르카이트는 『이슬람의 단식과 성지순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라마단이 갖는 의미를 "라마단 달에 금식을 수행하는 무슬림들은 모든 과거사를 사면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간은 이슬람 군대가 바드르 전투에서 승리한 위대한 달이며,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달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라마단 달에 금식하는 자는 알라에게 많은 보상을 받는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달을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달로 여긴다. 왜냐하면 꾸란이 하늘에서 무함마드에게 내려온 날이기 때문이다. "만백성을 위한 축복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꾸란을 라마단 달에 계시하나라"(꾸란 2:185). 따라서 무슬림들은 라마단 달에 금식을 함으로써 알라를 경배한다. 그리고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 달이기도 하다. 천국의 문은 열리고 지옥 문들은 닫히는 달이라고 무함마드는 언급하였다. "라마단 달이 시작되면 천국 문들이 열리고 지옥 문들은 닫히며 사탄들은 사슬들로 묶이게 되노라."(Al-Bukhari no.3103, Muslim no.1079) 따라서 무슬림들은 라마단 달을 기다리며 복을 받기를 소망한다.

라마단 기간에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천사는 성경의 가브리엘인가?

이슬람에서 라마단을 성스러운 달로 여기는 것은, 라마단 달 27일에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의 계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꾸란 96장에 나타난, 계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무함마드는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13년 동안 계시를 받았을 때 가브리엘에게서 받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언급된 꾸란 구절은 두 곳(꾸란 2:97-98, 꾸란 66:4)인데, 모두 무함마드 생의 말기에 그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는 누구에게서 계시를 받은 것인가?

무함마드는 첫 번째 계시 때 자신에게 찾아와 두려움을 가져다 준 '한 영'을 악령(惡靈)이라고 생각하였다. 『꾸란과 성령』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을 때 나타난 '한 영(靈)'을 '진'(Jinn)으로 보고 있다. 진이란, 아라비아나이트의 '요슬렘프'에서 나온, 랩스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같은 존재이다. 이 '진'(Jinn)이라는 존재는 성경에는 없고 꾸란에만 나오는데, 중동과 아랍 지역에서 거의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 진의 존재와 그 역할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영이 성령(聖靈)이며, 이 성령을 가브리엘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통해 결속을 다지며 신앙이 깊어진다

금식은 라마단 기간인 한 달 동안 실행되며, 그 해의 아홉 번째 초승달이 나타날 때부터 시작한다. 보통 매일 해가 뜨기 전 새벽 4시부터 일몰 때까지인 오후 6시까지 금식 시간이 된다. 금식이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무슬림 공동체를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금식하는 동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 침도 삼키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약물조차 복용하지 않는다. 또한 향수를 바르거나 사교를 하는 것도 금하며, 성관계도 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하더라도 모욕적으로 대꾸해서도 안 된다.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용서해야 하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의 목적 중 하나는 꾸란 전체를 읽는 것이다. 만일 이 기간에 꾸란을 모두 읽으면 갑질의 복이 내린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꾸란에 대하여 탐구하고 알라를 더 깊이 알고려고 한다.

이 기간에 이슬람은 종교적으로 더 큰 목적을 달성한다. 즉 전 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이 같이 금식함으로써, 그들 각자는 서로에게 형제애를 느끼고 알라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라마단 달이 되면 이름뿐인 무슬림들이 독실한 무슬림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한 달 동안의 라마단이 끝나면 3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이를 '이들-피프르'(Eid-ul-Fitr)라고 부른다. 이 축제 동안은 무슬림이 금식의 결과로 알라에게 위대한 보상을 받는 기간으로서, 다른 무슬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라마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타종교의 행사로 인식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히려 이슬람에 대하여 바로 알고, 무슬림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라마단 기간 중 기도하는 시리아 무슬림. ©FIM국제선교회 제공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텐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ers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1 *2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케직(Keswick)운동의 영성(II)

I. 케직운동의 시작: 역사적 기원

1. 제1회 케직사경회

1875년 7월 케직사경회(Keswick Convention)는 “성경적 성결의 증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 호수 지방의 휴양도시 케직에서 역사적으로 열렸다. 옥스퍼드 집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고 “안식하는 신앙”(resting faith)을 경험한 케논(Canon, 주교(主教)) 배터스비(Thomas Dundas Hartford Battersby)가 이 브라이턴 집회에서 케직사경회를 계획하였고, 다음해 1875년 7월에 그가 시무하는 케직 성 요한 교회의 목사관의 아름다운 뜰에서 작은 규모의 집회로 열렸다. 배터스비가 이 집회를 계획했을 때, 그의 계획이 영구적이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 사경회는 비공식적으로 소집되고 배터스비가 주관하였고, 집회 운영은 “성령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견고한 원칙과 이에 반하지 않는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38).

제1회 케직사경회에서 배터스비는 다음과 같은 내면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를 지향한다고 피력하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말을 매우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분명하게 신성한 삶의 비밀에 이르게 하는 사람, 기꺼이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성실하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누리고 거룩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매우 명확하게 밝힐 사람이다.”(“Keswick Convention, 1879,” 7, S. W. Patridge & Co.; 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35).

2. 케직의 목적과 정신

피어선은 케직사경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는 개인 성결의 증진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조용히 그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그 분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Keswick Convention, 1879,” 7, S. W. Patridge & Co.) 둘째는 성화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풍성히 실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몸이 하늘에

계신 신랑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다.(“Keswick Convention, 1879,” 8, S. W. Patridge & Co.; 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36).

케직운동은 “실천적 성결의 증진”(the promotion of practical holiness)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All One in Christ Jesus)를 추구한다.

당시 영국에서 1856년 이후(1857년 제외하곤) 1870년대 지속적으로 연례집회를 열었던, 성결운동이었던 마일드메이 서클(Mildmay Circle)의 영향을 받았다. 데이비드 베빙톤은 마일드메이 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마일드메이는 영국성공회 안에 있는 복음주의 당파의 한 부분을 그 세기 중엽에 일반적으로 환영받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영적 열망으로 이끌었다.”(David Bebbington, 『영국의 복음주의 1730-1980』, 250). 그러면서도 케직사경회는 “신앙에 의한 성결”을 강조한 점에서 개혁주의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케직사경회 설교자들의 영적 태도에 대하여 배터스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회생제단에서 오는 성령의 불로 단련되고 순화되어서,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케직의 목적과 정신들은 “인간의 웅변에 불과한 것에 매달리는 것을 조심스럽고 주의깊게 피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얻기 위해 끊임없이 그 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려는 간절한 소원 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36).

피어선은 그리하여 케직사경회는 처음부터 “사도적 특성”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한다. 사도적 성격이란 “성령을 신적 선생이요, 모든 집회의 운영자로 높임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기도가 모든 성공과 복의 중대한 조건이요, 연설을 하거나 듣는 일을 준비하는 비결이요, 말씀의 씨가 뿌려진 뒤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비결로 강조되었다. 또한 사람의 가르침은 그 적합성이나 권위 모두 최고의 교사에 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과 조화를 이루는 영적 상태가 현저하게 요구되었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36-7).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케직사경회에서 교회의 부흥과 성결운동을 중심으로 연합운동을 하면서 웨슬리적인 부드러운 알미니안주의와 정통개혁주의적인 부드러운 칼빈주의는 이러한 연합운동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 교리적 장벽을 넘어섰다(David Bebbington, 『영국의 복음주의 1730-1980』, 253). 강경한 알미니안주의(hard arminianism)는 자유주의(liberalism)로 나아가고, 강경한 개혁주의(hard calvinism)는 과격 칼빈주의(hyper-calvinism)로 나아가나, 성경적이고 복음과 성결운동은 부드러운 사고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3. 케직 사경회의 진행방식

초기 케직 사경회에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서는 물론 개인적인 연락관계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모였다. 참여자들과 지도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독자적으로 왔으며,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이지 않았다. 케직은 전도대회가 아니고 사경회, 즉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었다. 참가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성서를 공부하였고, 이전의 집회들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사경회에는 성경학원생들과 기독교 사역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초기 케직사경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초기 사경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설교였다. 설교자들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복음과 성결을 가르쳤다. 케직사경회는 잡지 발간 등의 여타의 방법들도 수용하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술(口述)에 의한 가르침이었다.

피어선은 케직사경회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고 시행된 방식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성령이 모든 집회의 사회자와 최고 운영자이다. 모든 집회를 성령의 인도 혹은 주도 아래 위탁한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서로 간에 복을 받고 나누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서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림이다. 셋째, 사람 경배를 피한다. 선생들은 그들의 재능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넷째, 세속적 매력과 후원에서 독립된다. 숫자는 성공의 지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정은 직접 호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으로 충당한다. 다섯째, 예배, 증언, 그리고 교제의 사도적 단순성을 지키고 계발한다. 음악과 가르침,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과 성결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종속한다. 여섯째,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케직 강단은 “성령의 영감,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구속 및 부활, 성령으로 종생, 미래 나라의 상급 등 중요한 기본 사항에 대한 신자들의 일치라는 기반에 세워져 있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케직운동』, 77).

케직의 모임에서는 예배나 성경 공부 등에서 주로 회중 전체가 찬양을 했다. 독창은 거의 없었다. 찬양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위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또한 자발적인 헌금을 위해 케직 천막에는 나무로 만든 헌금함을 비치하였다. 케직사경회에 참석하였던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통한 사도적 방법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자기의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해외로 선교사가 되어 나아갔다.

케직의 강사는 특정한 교파의 교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신학 학위를 가졌어야 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아니어도 가능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케직이 반지성주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강사로 초빙되었고 케직의 성경교리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성화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실제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증한 자로서 남에게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선택되었다.

케직사경회의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월요일에는 죄에 대한 견해에 따른 일반적인 조사, 화요일에는 죄를 처리함,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 목요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휴식, 금요일에는 봉사를 위한 성령의 능력, 토요일에는 선교, 성찬식, 교제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All one in Christ Jesus)(갈 3:28)를 실감할 수 있는, 7천여 명을 수용하는 대형 천막 속에서, 그야말로 인종, 언어, 문화, 신분의 모든 벽을 넘어 함께 떡을 떤다.

천막은 집회가 끝나면 거두지만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와 주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상징과 복과 감격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4. 케직 사경회의 파급력

1875년 제1회 개최 이후 케직사경회는 매해 개최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성장하였다. 1901-2년에는 3천 명 정도 수용 가능한 두 개의 천막이 매일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비교적 넓은 서너 곳의 집회장소들이 있어서, 보다 적은 규모의 모임, 사역자, 젊은 남성, 젊은 여성 등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케직사경회가 열리는 10일 동안 대략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 연례 모임에서는 유명 강사를 40-50명 정도가 모인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운동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이 운동의 목적과 가르침을 찬성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든 땅에 흩어져 있다. 케직사경회 기간에는 영국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대표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이 연례 축제에 참석하러 왔다.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알려짐에 따라 케직사경회 문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케직 도서관”이 생겨나 「신앙생활」(Life of Faith)이라는 정기 간행물이 생겨 영적 삶에 관한 케직의 가르침을 전달하게 되었다. 케직사경회는 동양(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초창기 교회의 부흥운동), 캐나다, 인도, 미국, 남아프리카,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 웨스턴인도제도 등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리고 케직 운동은 미국 근본주의, 오순절주의, 미국 성결운동에 기념비적인 영향을 끼쳤다(David Bundy, Keswick: A Bibliographic Introduction to the Higher Life Movements. First Frutis Press, Wilmore, Kentucky, 2-2012, 12).

말년의 무디는 미국에 케직 교사들을 초청하고 그 자신도 케직 강단에서 설교하였다. 무디는 1874년 초 죄의 용서만큼이나 온전한 성화에 관하여 설교하였다. 무디는 “참된 기독교인은 세상과 그 재미에 대한 취미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으며,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못 박혔다”(The Christian, 22 January 1874, p. 5.)고 역설하였다. 무디는 성화를 성결주의적 관점보다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하였다. 무디는 1871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체험”하였다. 무디는 도덕적 투쟁의 삶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완전 성결주의를 비판하면서 죄악된 본성은 제거될 수 없으며,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것을 부인하는 개혁주의 성화론 입장에 섰다. 이는 케직 영성의 성화론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째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째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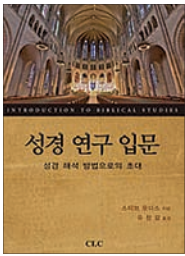


신간 추천

성경 연구 입문

스티브 모이스 | CLC | 288쪽

기독교 역사에 있어 여러 성경 해석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우리 시대는 어떤 해석을 추구하고 있는지 개관하고 있다. 지난 세기 방대하고 난해한 성경 비평학의 해석 방법들에 대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저자는 우리가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이규현 | 두란노 | 280쪽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책은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예배 말씀 중 특별히 인생의 광풍을 맞아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영혼의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말씀만 골라 구성했다. 저자가 직접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함께 들어가 겪어낸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기에 살리는 힘이 있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란다.



디도의 일기

진 에드워드 | 생명의말씀사 | 3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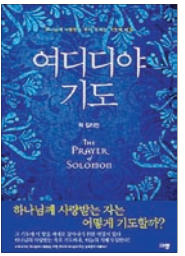
이 책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녔던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그들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세련되거나 멋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듯한 조직도, 세련된 교회 프로그램도, 멋진 교회 문화도 없었다. 신분, 지위, 재물보다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영혼의 자유"였다. 특히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졌던 주요 초대교회들의 생생한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다.



여디디야기도

릭 킬리언 | 규장 | 192쪽

여디디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이름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 기도에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기도하라.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 이 책을 읽으면 여디디야, 솔로몬의 삶을 변화시킨 그의 기도에서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여행을 지금 시작하라!



REVIEW

크리스찬다이제스트, 매튜 풀 성경주석 전집 출간

신약 4권 먼저 선보여... 올해 내 완간 예정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청교도 성경주석 전집(Matthew Poole's Commentary)' 출간을 시작했다. 이 전집의 저자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매튜 풀(Matthew Poole, 1624-1679)이다. 구약 13권과 신약 8권 등 총 21권으로 출간될 전집은 지난 5월 마태복음, 마가·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로마서 등 14-17권이 먼저 선을 보였다.

출판사는 2013년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내로 신약 주석 완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석으로는 최초로 전자도서(e-book)와 동시 출간한다. 전자도서 가격은

종이책보다 최대 50% 정도 할인·책정될 예정이다.

매튜 풀의 주석은 지난해 그책의 사람들에서 <갈라디아서> 편이 먼저 선을 보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잘 알려졌다. <갈라디아서>에서 선 보인 대로 매튜 풀의 주석은 서론 이후 군더더기 없이 본문으로 곧장 들어가, 단어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해석하며 관련 성구들을 제시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한다.

일례로 로마서에 대해, 매튜 풀은 서론에서 "로마서는 어떤 사람들이 '신성(神性)의 정수(精髓)'라 불렀을 정도로 그 내용이 탁월하고 충만하다"며 "본 서신의(서문과 맺음



청교도 성경주석 매튜 풀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479쪽

말을 제외한) 몸통은 교리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나뉘는데, 교리적 부분에서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 앞

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본적 교리를 다루고 이러한 교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확장된다(12:1-21)"고 소개하고 있다.

매튜 풀의 주석은 최고의 성경 주석가로 불리는 매튜 헨리(Matthew Henry, 1662-1714)에게서 극찬을 받았다. 헨리는 "매튜 풀의 주석은 특히 성경 어구들을 해명하고 그의 미를 밝히며 병행 성구와 관련시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탁월하다"며 "그러므로 나는 매튜 풀의 주석

에서 상세히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다루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다루지 않도록 노력했다"고까지 했다.

이 외에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펀전(Charles H. Spurgeon, 1834-1892)도 매튜 풀의 주석에 대해 "여러분의 서재에 반드시 갖춰야 할 책이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낸다"며 "매튜 헨리의 주석을 다 읽은 상태에서 오직 한 질의 주석만을 더 갖는 것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튜 풀의 주석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

우리 집에는 20가지 이상의 화학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세제는 친환경 무공해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가 대신 합니다.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는 토양에서 발견한 생물에 이로운 균들을 이용하여 산화를 막는 효소를 연구 개발하여 화학제품을 대신한 친환경 다용도 세제 제품입니다.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거울,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 가꾸기를 한 개의 이레 다용도 친환경 세제로 통일하여 비용과 물을 절약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특별 사은품
이레 에미나 1 Box(1kg: 4인 가정 1년 사용량), '밥돌' 구입하신 분에게 '생생팩 5Kg용' 1장 특별선물

【가정 필수 제품: 밥돌】
밥 지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 선물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조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공평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비누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혀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2~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3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문의: Yirrh Wellbeing Co. **이레 웰빙** Tel:323)316-6815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안타까움 담아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류를 통해 받은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담은 신간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가 글모아 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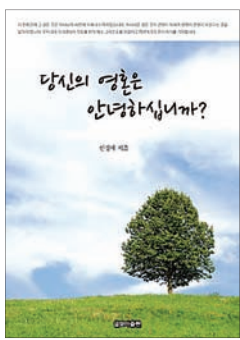
천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미혹을 이겨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위치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인 큰 사랑의 목적을 스스로 상실하고, 육적·물질적 충족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하나님께 원하는 사랑’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정욕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영적 가치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오해하여 영적인 가치를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신경애 | 글모아 | 352쪽

상실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세상의 쾌락만을 좇아 살아가기에 바쁘다. 또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외면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시시때때로 거짓말만 늘어놓는 자신의 영적 모습을 알지 못하고, 거짓이 진실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회칠한 무덤 같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나, 그 영혼은 썩고 병들어 더러움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아무 분별없이 마귀와 벗되어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친구인 척 위장하고 있다.

영적 소경이 되어, 성령님이 일하

심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사용하셨다.

기독교인들의 삶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는 경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니면서 심판의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복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혜진 기자

잃어버린 경이로움 어떻게 찾아

기독교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의 “경이로움”



경이로움
라비 재커라이어스 · 권기대 옮김
베가북스 | 220쪽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는 것들이 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그 중 하나로 ‘아이디움’을 꼽을지 모른다.

책 「경이로움(Wonder)」(베가북스)의 저자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도 이 책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의 비극은 천진난만한 유치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아이디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경이로움」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경이로움’에 관한 책이다.

기독교 변증가인 저자는 “이 경이로움을 되찾아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판타지(환상)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삶의 종말에 이르러 ‘소문난 냉소가’라든지 ‘통명스러운 늙은이’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마지막까지 삶을 축하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대로 흠 향아리들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한 쪽 한 쪽이 그 진리를 깨닫고 경이로움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표인

박성민 목사는 “이 책의 저자는 잃어버린 경이로움과 그 황홀함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시들어 가는 기독교 신앙의 회복”이라고 한다”며 “지적이며 영적인 치유를 원하고, 삶의 경이로

운 본질을 다시 발견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함을 통하여 기쁨과 충만의 삶을 누리길 바라는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 책의 출판사가 17일 오후 서울 합정동 한 카페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은 그 속에서 경이로움을 찾고 싶어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종종 방황하고 만다. 이 책은 과연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본래적 ‘경이로움’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했다.

역자인 권기대 씨는 “우리가 경이로움을 어떻게 되찾고, 또 어떻게 이를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저자는 감사와 진리, 사랑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도 지킬 수도 없다고 저자는 역설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보살피도록 맡겨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 들고 있다가 우리가 잃어버려놓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을 책망하더니,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라! 경이로움이란 엄격하게 지키고 사려 깊게 움직여야 할 그런 ‘소지품’ 같은 것이다.”(제3장 ‘열정적인 추구,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네’ 중)

책에는 라비 재커라이어스의 강연이 담긴 DVD가 수록되어 있어 조금 더 생생하게 그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김진영 기자



CCC 대표 박성민 목사가 직접 책을 소개하고 있다.

“온전한 청지기 될 때, 하나님나라 섬길 복 허락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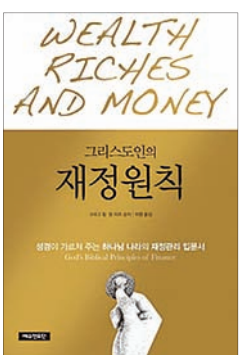
7가지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 사용 원칙 제시

저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구절 외에는 돈에 대해 다루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성경이 돈에 관하여 적지않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돈을 소재로 하여 여러 비유를 사용하셨는데도 말이다.

“신약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 215개,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인 데 반해, 금전 및 재정의 청지기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은 무려 2,084개나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책을 통해 영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재정 관리와 사용의 7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①맘몬의 영을 분별하고 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크래그 힐 · 얼 피츠
예수전도단 | 320쪽

으라 ②‘참새 믿음’을 가지라 ③심 일조를 드리라 ④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⑤예산의 원을 단오라 ⑥빚을 해결하라 ⑦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종이 돼라 등이다. 그야말로 기본 원칙이다.

책은 사탄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경제체제는 ‘사고 파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고

받는’ 경제체제로 완전히 구별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재정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등 재정을 잘못하고 있는 세상 체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영적 영역에서 ‘맘몬의 영’을 이길 순 없다.

저자들은 “우리는 재정에 대해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실 수 있다”며 “하나님은 많은 돈을 세상 체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하나님나라에 돈이 사용되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말로 ‘성경적 행동을 준비하고 간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부제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리 입문서(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11년 전 나온 책의 개정판이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무수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er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상세화자, 책자, 만수목판내 전문)
junimedia.com

전도예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지 선물을 장방, 실교서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세트 1,000set (\$180)
고급종이 용지 100매 10매가 묶여 있습니다.

전도용 배너 * 각종 사이즈 제작 가능!!!
각종 행사용 배너 및 전도용품, 각종 용지를 구매하여 드립니다.
완성배너를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상품을 할인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인체공학적으로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전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는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축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육결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가족 건강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3rd St.
Oxford Av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틈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Copyright for Worship Music: 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formed?

BY RACHAEL LEE

A wave of sudden awareness and urgency regarding copyright licensing swept over the Korean ministries (KM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recent weeks.

A Korean copyright licensing company sent letters to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Southern California area, warning them that if they are not using their musical resources legally, they are under risk of being sued. The group then encouraged the churches to sign up with their company by the end of June.

This caused KM leaders – who had largely neglected the issue until this incident – to start attending seminars on copyright licensing, and hold inter-church meetings regarding copyright. Articles on copyright licensing also flooded the headlines of Korean media.

In comparison, there's a greater awareness of copyrights amo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in terms of legal coverage, it seems to be divided. Some Korean American ministries (including independent churches and English ministries) have coverage under a copyright licensing company, while others don't. Leader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lso vary in the degree of how well-informed they are about copyrights.

"I've been aware of CCLI for a long time," said Pastor Kiwon Suh of New Life Vision Church in Los Angeles. CCLI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i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licensing companies for Christian music that offers churches legal permission to reproduce musical resources in return for an annual fee.

Suh, who has been involved in worship ministry prior to becoming the EM pastor of NLVC, said he became aware of copyright issues through his involvement in worship.

"Worship leaders who have been to worship seminars and conferences should be aware of this issue," he said. "Maybe not



The issue of copyright became a major part of discussion in Korean ministries in recent weeks. The above photo shows believers worshipping together at a 2013 Chris Tomlin concert in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Photo courtesy of Steve Yoon)

Getting legal permission to copy songs is a way to support worship ministries and maintain integrity, worship ministers say.

all conferences talk about it, but many of them do. And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copyright in worship publications."

Jennifer Kim, who is a part of the worship staff at Church of Southland, also said that she learned of copyrights through worship seminars. Church of Southland is a pan-Asian church in Anaheim, CA with a large Korean American demographic.

"That's always been a priority for us -- that we're covered, and that we're giving credit where credit's due," Kim said of her church, and added that copyright is a topic that is discussed relatively often among the church staff. "We're constantly using resources, so this issue is really important in ministry."

In contrast, an EM pastor of a Los Angeles church said, "To be honest, I didn't know about this issue until all of this happened," referring to the letters that KMs had received recently. He added that though they had not had legal

permission to copy the music, they had never run into legal problems, feedback which was shared by another EM pastor of a north Los Angeles church.

There are also EM pastors in the middle, who know that their ministries are covered under a copyright licensing company, but are unsure of what exactly is covered by their plan, or what it really means for their ministries.

(To note, the copyright coverage, or lack thereof, of the KM did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coverage status of the EM. Some EMs have coverage together with the KM; others have separate coverage apart from the KM and do not know whether the KM is covered; still others do not have coverage while the KM also does not.)

"Is it a problem if no one is having any legal issues?" and "Why do we have to pay when we're just trying to worship God?" are among some of the counter arguments one may have against the idea of

purchasing legal permission to copy music.

However, Suh said, the goal of copyright licensing companies is to "encourage the Christian artists, and to keep churches accountable."

It's also a matter of integrity, according to Han-Sung Chae, the president of Elohim CMP, a Korean copyright licensing company.

"The heart of copyright licensing is that the songs that have been used or will be used is properly paid for," said Chae, who is also in worship ministry himself.

"We want to help those who are having a hard time continuing their worship ministries due to financial lack. And we want to ultimately help move these worship ministries forward by bringing back the rights of these songs to whom they are due."

There are several ways churches and ministries can be assured that they are legally using their musical resources. One is only using songs in the public domain, which includes

most hymns. These songs are free to the public and can be reproduced freely.

Another option is to follow only what is permitted under the Religious Service Exemption of U.S. Copyright Law. This exempts the performance of songs – including playing songs with an instrument and singing songs – during a religious service from being considered as copyright infringement. This means churches could play the worship songs during worship, but it would be considered a copyright infringement to pass out copies of chords to the worship band members, or copies of sheet music to the choir.

Yet another option is to pay an annual fee to a copyright licensing company and have access to all of the songs in the licensing company's database.

The database of the aforementioned CCLI has over 300,000 Christian songs, and offers various coverage options depending on the church's needs. Its most widely used plan allows the church to store lyrics, print songs, and create projections, among others.

Christian Copyright Solutions (CCS) grants churches access to millions of songs under ASCAP, BMI, and SESAC, some of the largest performance rights organizations that also cover secular songs. However, a major difference between CCLI and CCS is that CCLI focuses on allowing churches to copy music, while CCS focuses on allowing churches to perform music outside of a religious service (for example, playing music – live or recorded – at a fundraiser). Performance of music outside of a religious service is not exempt under the Religious Service Exemption, and would thus need coverage.

The annual fees differ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hurch attendance, and some copyright licensing companies require that churches report which songs they used on a regular basis, so that the royalties could be properly given to the respective Christian artists.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I: "English Ministry Is a Specific Calling"

BY RACHAEL LEE

Pastor Henry Lee is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at Los Angeles Full Gospel Church (LAFGC), located at the edge of Hollywood. Lee has been serving at LAFGC for over five years, and has served in numerous Korean immigrant churches as an EM pastor prior to serving at LAFGC.

Q: Could you briefly introduce the EM at LAFGC?

A: The EM at LAFGC is called Crossroads Church, or CRC, and we are about 70 to 80 people. Most of us are Korean Americans and about 5 percent of us are non-Koreans, including Chinese, Filipinos—most of us are Asian. We are semi-independent, meaning we'r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 KM, but not structurally or organizationally.

Q: What are some unique qualities of Crossroads Church?

A: The focus of our EM is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around our church. One of the biggest things we do with the community is our annual community café night around Christmas time. Our front lawn is really pretty with the lights set up, so we would set up tables and have our café night there. The past Christmas, a couple hundred people came out, including the immediate neighbors in the area right around our church, and some people from the KM joined us, too. We had a full orchestra that performed outside, and we catered Ricky's Fish Tacos, and it was just a lot of fun.

We also reach out to people in the community and ask them if there is anything that we can pray about for them. There's a lot of homeless people right on the corner of Hollywood and Vermont, and there's a lot of drug addicts around here, too. There's just a lot of brokenness. Some people would also come by and visit our church on their own.

Q: Are there any activities that EM and KM do together at LAFGC?

A: There's plenty of activities that we do together, but a few worth mentioning include our annual New Year's Eve worship service. That's a full production because the KM choir performs and we have musicians we invite for an orchestra, and we have a full-on concert for about an hour to an hour and a half. Then after the concert, which we call the cantata, our senior pastor would come and preach, and we do the countdown all together.

The KM also goes to our church's retreat center in Romoland after Sunday worship once every month, so they would invite EM to come and join them and worship together at the retreat center during one of those months.

During our church's Friday night services, we also have a dedication service for each department, so every once in a while, it would be time for the dedication service for EM. So we would prepare a body worship, or a skit, or some kind of a performance to introduce CRC to the rest of the church.

Q: Many say that one of the key aspects that affect an EM pastor's experience in ministry is the relationship he has with the senior pastor. What's your take on that?

A: Personally, our senior pastor, Reverend Yu Chul Chin, has been really good at showing me and all of the staff, and even the congregation, that he thinks about us and cares about us, even though we all don't get to meet with him that often. With the staff, he maximizes the time that we have together. For example, when we have our meetings, it's not just about administrative or logistical things, but he takes his time with the staff to give us a lot of leadership lessons. And he's a very spiritual and charismatic man – even with minimal contact, the congregation is able to feel his shepherding heart.



Pastor Henry Lee is the lead pastor of the EM at LA Full Gospel Church.

So while I do agre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ior pastor and the EM pastor should be a good one, I think it's a little unfair to expect mentorship from the senior pastor, unless it's in the job description. A senior pastor who doesn't know the American culture is not going to mentor you in the way that you want. It's unrealistic to expect that because they, as first generation, don't understand what we are going through as second generation pastors. It's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al ministry experience. I think the relationship that's expected should be on an administrative level.

EM is a calling in and of itself. Younger pastors who are considering pastoring in EM really have to sit down and think, "Is this what I want for my pastoral ministry? Do I want to pastor in this specific context?" EM is a specific calling, with specific difficulties, just like being a missionary. Once the EM pastor sees this ministry as a calling, they'll be able to say, "Ok, I am going to persevere through this," even when it gets difficult.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BY JUNHYEONG KIM

A Korean Christian TV broadcasting company called CTS America hosted its fifth annual fundraising concert on Saturday, 7:30 PM at Bethel Korean Church in Irvine, CA.

A unique aspect of the concert, called the "Hope-Giving Concert," is that all of the performers participate in the concert free of charge, allowing all of the funds to go directly to the community and to mission work.

This year, funds went to more than nine different mission organizations, low-income families of seven different churches, and victims of the Nepal earthquake.

Performances by a women's

choir, a dummung group, a string ensemble, soprano Jung-Won Choi, and others contributed to a beautiful concert.

Meanwhile, CTS also hosted a charity golf tournament on the same day at 1 PM in Irvine, during which some 100 participated.

CTS plans to use the funds from the tournament as scholarships to cover tuition and housing for 12 seminary students in the mission field, supporting them \$100 each on a monthly basis.

CTS is currently broadcast through all 24 hours of the day on channel 2092 on DirecTV. The broadcast can also be accessed through their website, www.ctsamerica.tv, and through the CTUSA phone application.

Concert Gives Funds to Mission Organizations and Nepal Victims

Milal to Host 'Camp AGAPE' to Serve Those with Disabilities

BY NARAE KIM

Milal Mission will be holding a service camp for youth with disabilities.

Branches in southern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Seattle, and Vancouver are among some of the branches that are coming together to hold the "Camp AGAPE" that will be taking place from June 25 to 27, themed, "Let's See the World!"

The camp will be taking plac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The theme verse for this year's camp i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based on Matthew 5:14.

The mission organizations PPOG, a worship ministry, and TRAC, a youth community service group, will also be participating in the camp.

"We're planning on having a feet-washing again, something we've done and we've been blessed through since the camp in 2013,"

said one of the Milal organizers.

"We're hoping that the action of volunteers serving those who are disabled by personally washing their feet would allow participants to experience Christ's love, and that all would become united as one body, past the differences of having disabilities or not."

Milal Mission is an organization that focuses on serving those with disabilities, and holds various programs including Camp AGAPE, and Class AGAPE, a free Saturday school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lping them to develop their intellectual and social abilities. Class AGAPE is available in Fullerton, Los Angeles, East Los Angeles, Irvine, and Torrance.

The organization also hosts various programs for those with hearing disabilities, including sign language classes and worship team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milalmission.com.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